

□ 자료소개

백범 김구의 개종과 초기 전도 활동

옥성득(보스턴대 교회사 박사과정)

1. 서론

지금까지 김구(金九, 1876~1949)와 기독교의 초기 관계에 대해서는 선생이 1929년에 쓴 자서전 《백범일지》(白凡逸志) 상권에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해하였다. 그 내용은 그가 27세이던 1902년 친구 우중서(禹鍾瑞) 조사(助事)의 권유로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으며, 1903년 2월 황해도 장연읍 사직동에 이사한 후 예수교를 믿으며 교육에 전력하다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진남포 엠피(Epworth, 懿法) 청년회 총무로 서울 상동교회에 와서 상소운동 등 구국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백범일지》에 나오는 자술을 뒷받침해 줄 다른 사료들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발행하던 선교잡지 *The Korea Field*의 1904년 11월호와 1905년 8월호에 나오는 기사들로서,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을 재확인 내지 보충하고, 일부 수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김구의 행적을 연보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1903. 가을 | 기독교로 개종 |
| 1903. 12. 31- | 평양 장로교 겨울 사경회 2주일간 참석 |
| 1904. 2월 | 해주에서 장연으로 이사 |
| 1904. 2- | 장연에서 봉양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오순형과 마을 전도 |
| 1904. 봄 | 장연읍교회가 설립되고 주일 예배 시작, 교인 40여 명으로 성장 |
| 1904. 여름 | 오순형과 함께 평양 교사사경회와 영수사경회에 참석 |
| 1904. 여름 | 숭실학당 졸업생인 최광옥을 장연에 초청, 매일 밤 전도집회 개최, 오인형 일가 등 개종 |
| 1905. 7 | 장연읍교회는 영적으로 다소 침체, 봉양학교는 자금 가능 |

2. 자료 해석

이들 자료들이 새로 밝혀 주는 사실은 첫째, 김구의 개종이 1903년 가을이었다는 것이다. 즉 자서전에서 기억하는 1902년이 아니라, 1903년 가을에 김구는 개종하였다. 앞으로 김구 연구에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1903년 11월 한달 간 헌트(W. B. Hunt) 목사가 황해도 지방을 방문하고 110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 때 김구도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¹⁾

둘째, 개종 이후 1903년 12월 31일부터 2주일간 열린 평양 겨울사경회를 비롯한 사경회들에 참석하여 여러 달 동안(1903년 11월에서 1904년 1월 사이) 성경을 공부하였다. 이는 그가 개종 이후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정식으로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공부하였음을 보여준다.²⁾

셋째, 해주에서 장연으로 이사한 시기가 1904년 2월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자서전의 기억과는 1년 시차가 있다. 곧 김구는 부친상이 끝난 뒤 약혼자 여옥(如玉)이 죽자, 진사 오인형(吳寅炯)의 권유로 1904년 2월 해주에서 장연을 사직동으로 이사하였고, 그 아우 오순형(吳舜炯)과 함께 오진사 큰사랑에 봉양학교를 설립하고 동시에 마을 전도를 전개하였다. 오순형은 1903년 10월 1일 개학한 평양 숭실학당에 입학하였는데, 입학 당시 교인은 아니었으나 기독교에 관심은 있었다.³⁾ 숭실학당에서 배우면서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곧 개종하고 평양 시내에 나가서 전도할 정도로 믿음이 자랐다. 아마도 1903년 12월말에서 1904년 1월초에 열린 평양 겨울 사경회에 김구와 함께 참석한 듯하다. 그러나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평양에 들어오자 학교가 휴교되면서, 장연으로 내려왔다.⁴⁾ 그는 김구와 뜻을 같이 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적극적

- 1) N. C. Whiting to A. J. Brown, Jan. 29, 1904. “헌트 목사는 11월을 서부 시찰에서 보냈다. 모든 그룹을 방문했다. 시찰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았다. 그 증거들은 첫째, 110명이 세례를 받았고 101명이 학습을 받았다. 둘째, 최소한 네 학교가 신실한 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셋째, 사경회 참석자는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 태평동 사경회에는 152명이 등록했다. 베어드가 사경회를 도왔다. 신안보 사경회는 예상보다 적어 155명이 참석했다.”
- 2) 1903년 가을부터 선교사 2명이 함께 지방 사경회를 인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황해도에서는 베어드와 헌트가 사경회를 인도했다. 1903년 12월말부터 2주일간 열린 남자 평양사경회는 장연에서부터 강계에서까지 온 600여 명의 한국인이 참석했다. 하루 프로그램은 오전 2시간 성경 공부, 오후 1시간 성경공부, 저녁 집회가 주를 이루었고, 토요일 오전에는 토론회가 열렸다. 가르친 선교사는 평양의 Moffett, Baird, Lee, Swallen, Hunt, Bernheisel, Blair를 비롯해 선천의 Whittemore와 Ross 등이었다.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의 간증과 기도에 고무될 정도로 많은 한국인의 영적 체험이 깊어져 있었다. Miss. Snook과 Ms. Bernheisel이 찬송을 지도했다.(Cyril Ross to A. J. Brown, Jan. 9, 1904 ; N. C. Whiting to A. J. Brown, Jan. 29, 1904 ; E. W. Koons to A. J. Brown, Feb. 16, 1904) 이 일반 사경회에 이어 6명의 조사를 위한 신학반이 열렸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 선천에서 사경회가 열려, Swallen과 Baird가 가서 도왔다. 김구는 이 선천사경회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 Koons는 선천사경회에 대해서, “Church itself set on fire for souls. We are too happy to sleep.”이라고 보고했다.
- 3) 1903년 10월 베어드 교장은 숭실학당 전교생 70여명 모두가 기독교인이며, 이는 “미래 한국교회의 자치를 위한 풍성하고 완전한 희망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곧 단기간의 사경회보다 숭실학당의 기독교 교육이 미래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길러낼 것이라고 믿었다.(W. M. Baird to A. J. Brown, Oct. 9, 1903)
- 4) 서울의 알렌 공사는 1904년 2월 8일 S. A. Moffett 목사에게 전보로 일본군의 평양 진격을 알리고, 모든 선교사들의 여행을 중지시켰다. 황해도에 있던 Hunt 목사는 곧 평양으로 돌아왔다. 2월 16일 마펫은 알렌에게 전보로 모두 무사함을 알리고, 유사시 진남포로 미 군함을 보내어 선교사들을 철수시키려는 알렌의 계획을 유보시켰다. 곧 선교사들은 평양에 남기로 “영웅적인” 결정을 내렸다. 알렌은 2월 말 러시아군이 점령한 선천에 있는 선교사들을 평양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Whittemore와 Sharrocks 의사 부부는 선천에 남았다. 4월 하순에 평양을 떠났던 시민들이 다시 돌아왔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평양을 떠나지 않았으나, 지방으로 흩어진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때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우리도 야소교인이 되어 두려움이 없이 살자”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자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용하여 전도하셨다고 믿었다.[A. J. Brown, “The War and Our Devoted Missionaries,”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April 1904), pp. 241~246 ; “War,” *The Korea Field*[hereafter *KF*](May 1904), p. 161 ; “Still War,” *KF*(Aug. 1904), p. 177 ; A. J. Brown, “The Situation in Korea,” *The Assembly Herald*(Dec. 1904), p. 737] 한편 이 무렵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종말을 믿는 신앙이 일어나고 있었다.[“Personal Report of Rev. Cyril Ross, September 1903,” *KF*(May 1904), p. 176 ; “Native Propagating of the Gospel, From Annual Report

으로 마을 전도에 나섰고, 곧 주일 예배를 시작할 정도로 교인을 모았다.

넷째, 이처럼 1904년 봄에는 장연읍 사직동 오순형의 집에서 김구와 오순형에 의해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교인이 4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무렵 황해도에는 일종의 “전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교세가 급성장하고 있었다.⁵⁾

다섯째, 김구와 오순형은 1904년 여름 평양에서 열린 교사사경회와 영수사경회에 최소한 한 달간 참석하여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지도자 훈련을 받았다. 이때 진행된 사경회의 통상적 순서를 보면, “새벽기도회, 아침 식사, 30분간 예배, 오전 성경공부, 점심, 오후 성경공부, 찬송 배우기(1시간) 혹은 가두 전도, 저녁 식사, 저녁 집회 혹은 토론회” 등이었다.⁶⁾

여섯째, 영수사경회를 마친 김구와 오순형은 숭실학당 졸업생인 최광옥(崔光玉)을 장연으로 초청하여 함께 사직동으로 와서, 매일 밤 집회를 열고 전도하였고, 그 결과 오인형 일가 5명이 개종하였다. 김구와 최광옥이 이때 관계가 깊어졌을 것이다.⁷⁾

일곱째, 최광옥은 평양에 와서 이 사실을 숭실학당 교장 베어드(W. M. Baird)에게 알렸고, 1904년 9월에 작성된 평양선교지부 보고서와 베어드의 숭실학당 보고서에 김구와 오순형의 기사가 실렸다.

마지막으로, 1905년 7월 C. E. Sharp 목사 보고에 의하면, 장연읍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었고, 봉양학교는 김구(혹은 오순형)에 의해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성경이 주된 과목의 하나였다.⁸⁾

of Miss M. L. Chase, September 1903,” *KF*(Aug. 1904), p. 182]

5) 1904년 전반기에 황해도 교인이 급증하자, 헌트는 황해도에 일종의 “전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선교지부 설치를 건의하였다.(W. B. Hunt to A. J. Brown, June 15 & Aug. 15, 1904) 1904년 9월 북장로회 연례회의는 황해도 선교지부를 새로 설치하고 담당에 헌트 목사와 화이팅 의사를 임명하였다. 이로써 평양지부 안악 시찰의 장연읍교회는 재령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도지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헌트 부인의 사망과 헌트의 안식년 휴가로 지부 설치가 연기되다가, 1906년 5월 1일에 정식으로 재령에 선교지부가 개설되었다.(Cf. C. E. Sharp, “Opening a New Station,” *The Assembly Herald*, Nov. 1906, pp. 555~557)

6) “Our Training Class System : From Annual Report of Pyeng Yang Station, September 1904,” *KF* (Feb. 1905), p. 234. 당시 사경회의 초점은 ① 성경본문 공부, ②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고,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도록 함, ③ 권위 있는 설교와 성경적인 신앙, ④ 신자간의 남녀, 노소, 무식유식, 지방간의 구분을 없애고 전 참석자를 전도의 용사로 만드는 것, 곧 전 신자의 지도자(leadership) 훈련 등이었다. 한편 사경회는 그 참석 여부로 신자와 불신자를 명확히 구분 짓는 역할을 하였는데, “성경은 공동 적에 대항하는 공동 무기”로 인식되었다.(앞의 글, p. 235)

7) 최광옥(1879~1911)은 김구보다 3세 연하이나, 숭실학당을 4년간 다닌 후 1904년 졸업한 자로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문에서는 김구와 오순형의 선배격이었다. 최광옥은 이후 곧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신병으로 1906년에 귀국하여 평양 숭실학당과 서울의 경신학교 교사를 거쳐 의주 양실학교 교장을 지내다가 1908년 여름부터 1910년까지 안악면학회의 하기사범강습회를 통해 국교교육운동을 벌였다. 1909년에는 안창호가 설립한 평양 대성학교의 3대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건강이 나빠 반년만에 사임하였다. 그밖에 YMCA, 태극학회, 서북학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안창호와 함께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고 이동녕·전덕기·이승만·남궁억·이동휘·이승훈·김구 등과 같이 일했다. 그는 국어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대한문전》(1907)을 펴내기도 했다. 폐렴 악화로 1911년 34세로 요절하였다.

8) 1905년 5월 Mrs. Hunt가 재령사경회 참석 후 사망하였다. 헌트 목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 미국으로 안식년 휴가를 떠나, 7월 일리노이주 오타와에 도착했다. 헌트의 부재로 영적 침체가 빨리 회복되지 못한 듯하다. 그 이전 헌트는 황해도 개신교의 장애물로 천주교의 박해, 일본과 서구의 물질 문명 유입, 그리고 감리교회와의 경쟁 등을 거론한 적이 있다.(W. B. Hunt to A. J. Brown, June 15, 1904) 어찌

그러나 이 무렵 김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남포 감리교회 엠픽청년회에 가입하고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 항의하는 서울 상동교회 청년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로 진남포교회 엠픽청년회는 1905년에 조직되어 있었던 듯하다. 곧 1905년 초에 평양에서 엠픽청년회를 중심으로 교육 구국운동이 일어나고 모금이 시작될 때, 진남포교회에서도 학교 설립을 위해 900원을 모금한 사실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⁹⁾ 진남포교회는 1903년 강인걸 전도사와 김성규 권사의 노력으로 기틀을 마련하였고, 1904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1904년에는 강인걸 전도사와 이익모 전도사가 이 지역 계삭회를 맡아 목회하였고, 1905년부터는 이익모 전도사가 담당하였다. 1906년에는 교인이 454명으로 늘어나 새 교회당 건축 계획을 세울 정도가 되었다.¹⁰⁾ 한편 안식교가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1905년부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삼화-진남포구역은 평양지방 노블(W. A. Noble) 장로사 관할로서, 담당 선교사는 무어(John Z. Moore) 목사였다. 1905년 김구가 장연장로교회를 떠나 진남포 감리교회의 엠픽청년회로 갔다면, 이는 그가 1904-5년 당시 엠픽청년회가 가졌던 적극적인 민족운동 노선에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¹¹⁾

3. 한글 번역

【자료 A】

“지방 전도 사업 : 1904년 9월 평양지부 연례 보고서,” *The Korea Field*(1904. 11), p. 217.

“안악 시찰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개종한 김구와 오순형이라는 두 청년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업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들은 좋은 집안 출신들로서 경제적 형편도 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성경 공부와 전도에 바칠 수 있다. 김씨는 작년 가을에 개종하였고, 평양 겨울 사경회를 비롯하여 여러 달 동안 사경회에 참석하였다. 올해 2월에 해주에서 장연읍으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 오씨는 장연 사람인데, 작년 가을 숭실학당에 입학하였다. 당시 그는 기독교를 고백하는 교인은 아니었으나,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 그는 숭실학당에서 공부를 잘 했고, 처음부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양 시내 전도대회 기간에는 처음으로 가두 전도를 시도하였다. 일본군이 평양에 진격하자 그는 고향집으로 돌아갔고, 김씨와 함께 기독교 복음에 대해 아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그밖에 장터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길거리와 농부들이 일하다가 쉬는 들판을 찾아가 전도하였다. 곧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오씨 집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 참석자는 약

면 일진회와 천주교 등의 세력 확장과 연관된 침체일 수도 있다.

9) A. L. Becker, “A Desire for Education,” *The Korea Methodist*(July 1905), p. 125.

10) 1903~1906년에 발간된 북감리교 *Official Minutes of the First Annual Session Korea Mission Conference MEC*와 *Annual Report of the BFM of MEC*를 참고하라.

11) 당시 <신학월보>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들이 특히 민족문제에 관심한 엠픽청년회원들의 글이었다. 박용만, “십자군의격서 만엘루청년회”(1904. 6) ; 이승만, “대한 교우들의 힘쓸일”(1904. 8) ; 전덕기, “맛당찌울일”(1904. 10) ; 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설시함”(1904. 11) ; 정인호, “하느님을 부르고 믿을 것”(1904. 12).

40명 정도이다. 오씨는 다가오는 가을에 숭실학당에 가서 과정을 마치기를 원하지만, 이 일이 너무 중요하여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자료 B】

“숭실학당 진보 : 1904년 9월 베어드 박사 개인 보고서,” *The Korea Field*(1904. 11), p. 229.

“나는 고무적인 많은 경우들을 쓸 수 있지만 지면상 한 가지만 언급하겠다. 황해도에서 온 학생 오씨는 작년 가을 초신자로 입학하였다. 그는 지방 양반의 부유한 집안 자제였다. 그는 학교의 일반적인 영향과 가르침에 의해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간 뒤 고향 이웃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열심히 전도하였다. 러일전쟁으로 학교에 돌아올 수 없게 되자, 집에 남아서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길에 나가 장날에 모인 군중들에게 전도하였다. 그 결과 한 무리의 신자가 모여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는 이미 교인이 된 한 친구 [김구]와 함께 집 근처에서 학교를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평양에서 열린] 교사 사경회에 참석했고, 여름 영수 사경회까지 남아서 참석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숭실학당을 올해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 있는 최광옥에게 함께 가서 전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씨는 이를 받아들여 갔고, 가는 길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 이때 신천에서 온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장연 집에 도착하여 최씨는 매일 저녁 사랑방에서 전도하고, 모인 신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였다. 얼마 후 그는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오씨의 형 집안 사람 다섯 명이 새로 믿기로 결심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자료 C】

“한 해의 회고 : 1905년 7월 샤프 목사의 개인 보고서,” *The Korea Field*(1905. 8.), p. 269.

“장연읍 : 이 교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영적으로 거의 침체되어 있다. 나는 올해 가을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그들의 처지에 적절한 진리들을 가르치기를 희망한다. 지도자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매일학교에 아주 많은 소년들을 모았는데, 대다수가 불신자 가정 자녀들이다. 그는 연료비와 같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학비는 받고 있다. 성경 공부가 이 학교의 중요한 한 특징이다. 그는 이 학교를 통해서 읍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현명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